

예수 수난(성지) 주일

숲정이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까?

(마르 15,34).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기도서 275 면(B해)

제1독서 : 이 사 50,4-7
제2독서 : 필 립 2,6-11
복 음 : 마 르 15,1-39

□ 강 련



십자가에 못박음

김 정 원 신부

“그들은 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예수께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드시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다”(마르 15,23-24).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힘은 인류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의 아들이 완전히 한 인간으로서 저야할 죄의 대가 전부를 졌다는 것, 이로 인해서 죄의 인간이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결」이 열렸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암흑이 물러가고 인류에게 광명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류 악(惡)이 폭발해서 하느님의 아들을 죽였으나,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은 이것을 이용해서 「구원의 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것도 가장 치욕스런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하는 것,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모순이었다, 사도 바울로가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필립 2,8)라고 한 것은 이 놀랄만한 모순 대립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순이 인류의 구원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다.

십자가!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포함되고, 모든 것이 완성된다. 하느님의 지혜는 전부 십자가 속에 들어 있으며, 하느님의 의(義)와 사랑(愛)은 여기서 서로 교차한다. 여기에 그리스도교의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으며, 또한 여기에 인간 도덕의 추축(樞軸)이 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교는 십자가교이다. 그의 도덕은 십자가 도덕이다.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교 도덕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로가 말한 것처럼, 아니 그리스도 자신이 말한 것처럼 여기에 그리스도교의 「결집돌」이 있는 것이다(마태 21,44. 고전 1,18). 이것은 하느님의 지혜이지 인간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가 혹독하고 치욕스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 여기서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의 명백한 「표지」를 우리는 본다. 예수는 사람들이 포도주에 타서 준 마취제를 거절하고,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려고 했다. 참으로 이 태도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수는 마셔야 할 「잔」을 문자 그대로 마셨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인류구제의 위업(偉業)이었던 것이다.

십자가가 없다면 그리스도교가 없다. 우리는 사도 바울로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고전 2,2). (베소라 성서)



자성(自省)과 한없는 자문(自問)

확실히 이 시대는 바쁘고 어수선하다. 세계정세가 그렇고 국내정세 또한 예외가 아니다. 중공의 어뢰정 사건은 제법 그럴듯하게 매듭이 풀리고, 소련과 동독의 운동선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실력을 선보이게 되고, 법적인 이론이야 어떻든 많은 서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면서 대지사건의 이 정식씨가 일단은 풀려나게 되고, 민정당사에 들어가서 말쑥된 대학생들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재판 거부한다」 「사법권 독립 보장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방청객들은 피고인들과 함께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새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원로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이 정하게 가슴을 치며 눈길을 끌게 한다. 그분은 겸손하게 상왕의 어려움을 고백하며 편달(鞭撻)과 협력을 구했다. —“내 반생을 던졌는데 한국 정치가 요정도라면 여당이었던 야당이었던 이 순간에도 자성(自省)이 없으면... 국회의장커녕 의원을 또 한다면 한없는 자문자답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무척 마음이 어둡습니다. 이는 내 의지, 정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 형편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한국일보 3월 27일자).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틀바구니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신랄한 해학 때문에 조금은 고독하게 산,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그분의 성격으로 보면 공감대가 더 크다.

자성과 한없는 자문(自問)자답,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위로는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가장 힘없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그러해야 한다. 이 사순절, 특히 이 수난주일에 우리 기독인들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겸손하게 살피고 응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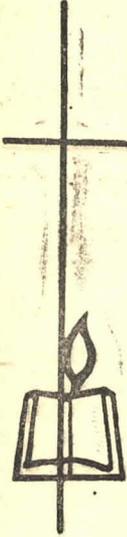
숲정이 산책



많이 보십시오

성서교실 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5)



이 말씀은 그리스도 사람이 필립보와 안드레아를 통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했을 때, 예수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예수를 하느님으로 알고 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하느님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먼저 예수를 「땅에 떨어져 썩을 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의 과정에 있을 「밀」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준비 과정이다. 예수는 부활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전에, 「죽음의 땅」에 내려와야만 했다.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죽음의 땅」에 온 것이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다. 죽음의 과정은 역동(力動)의 「힘」을 배태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낡은 자아의 생명이 죽어야 하는 것이다(고후 4:11 참조).

한 알의 밀처럼 그리스도는 죽으셨기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풍성한 열매인 부활 속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썩은 씨는 죽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다」(고전 15:36).

여기서 「살아나다」는 말은 「조오포이에오」라는 말이다. 씨가 죽기를 거절하면 생명에로의 작용, 능력(조오포이에오)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생명에로의 작용자는 죽음을 전제로 해서 새 생명을 역사(役事)한다는 것이다.

봉사는 계속적인 「자기 부정」을 말한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봉사의 최고, 최성(聖)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지?

++++ 성주간 전례의 의미 +++++

오늘은 예수님의 치욕적인 수난을 묵상하는 '수난(受難)주일'이다. 또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군중이 팻마가지를 흔들며 열광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성지(聖枝)주일'이라고도 한다.

오늘부터 성주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성주간에서도 절정을 이루는 날을 「빠스카의 신비」를 가장 깊이 체험케 하는 성 목요일, 성 금요일, 성 토요일, 즉 '성삼일'이다.

이 「빠스카의 신비」의 대표적 사건은 에집트 노예생활에서의 해방과 예수님의 죽음에서부터의 부활이다. 우리는 이 성삼일 동안의 전례에서 빠스카 신비의 역사상 사건들을 말과 행동의 예식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이는 곧 구원의 신비를 영적으로 현실화하는 예배행위인 것이다.

성지주일에 주의 입성을 환호하던 열광과 함께 십자가의 처단을 외쳐대던 인간의 연약한 배신을 씻고, 성 목요일엔 우리 죄를 치유케 하는 구원의 성유를 축성하는 미

사와 주의 만찬 미사에서의 세족례,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고(獄苦)를 묵상케 하는 성체를 옮겨 모시는 무덤제대 예절을 거행하고, 성 금요일에는 주의 수난과 죽음임을 새기는 말씀의 전례와 십자가의 장엄 경배 예절을 행한다. 또한 성 토요일은 부활전야 빠스카의 밤을 경축하는 빛의 예식을 통해서 어둠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즉 구원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재현되는 예절을 행한다.

교회는 주의 무덤 옆에 머물러, 주의 수난과 죽음임을 묵상하며 제단은 빛진 채 미사도 드리지 아니한다. 장엄한 부활 전야 예식을 거행한 뒤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맞고 경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구세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전례적으로 재현하면서 우리를 자신의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거룩한 성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묵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옷으로 갈아입고 빛-부활의 삶-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위상양내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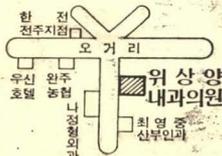
◎ 종합검사 내시경 및 초음파 검사시설완비

전주시 고사동 1가 184
(구 역전오거리)

☎ ②9152. 1752

위 상 양 (프란치스코)

김 병 희 (글 라 라)



KS 포시 허가공장
벽돌, 블록, 보도블록,
보·차도 경계블록, 콘크
리트 근가

신흥 콘크리트

대표 이교성(요셉)

전주시 효자동 2가 53-2

☎ ②0616 · ②6415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③3651 · 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 새벽을 두드린다

사순절, 막바지 시기를 좀더 기록하고 뜻있게 보내려는 노력이 각 본당에서 열렬하게 실시되고 있다.

봄이라지만 쌀쌀한 새벽의 맑음을 들이키며 진동, 동산촌본당 교우들의 치명자산상의 새벽기도가 사순절기의 열기를 더해주는가 하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숲정이 마당엔 덕진 교우들의 새벽미사가 매일이고, 각 본당(숲정이, 복자, 팔마, 수루, 신태인, 황등, 둔율동 등)에서는 사순절 특별 일일 피정일이 한창이다.

특히 노송동 성당에서는 본당소속 5개 공소 신자들을 위한 1일 합동 피정을 가졌는데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의 기쁨을 위한 몸과 마음의 신앙자세를 추스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무엇보다도 소외감을 갖기 쉬운 공소 신자들을 위하여 공소라는 어려운 여건중에도 사순시기 특별피정을 마련, 공소 신자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한 주간을 남기고 있는 사순절, 특히 이번 주간은 성주간이다. 무심했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교회전례와 거룩한 행사에 적극 참여, 기도와 극기로 우리 모두 기쁜 부활을 맞이하자.

□ 김제지역 본당 신앙쇄신대회 개최

사순절을 계기로 지역 본당간의 유대를 더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김제지역 신봉, 요촌, 원평본당이 합동으로 신앙쇄신대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26일부터 3일간 실시된 이번 신앙쇄신대회는 특히 교구내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강론을 맡아 이채로웠는데... 평신도의 신앙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증거하는 내용에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한다.

신자는 물론 예비신자와 외인들까지 참석한 이번 모임은 금년의 교회 사목지침인 신앙 증거를 위해 우리가 먼저 쇠신되어야 한다는 의도에 신자들의 열성이 더욱 컸던 모양.

지역간의 벽(?)을 털고 이웃 본당간의 깊은 신앙적 유대의 모범이 된 이번 모임은, 교회는 끊임없이 쇠신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뜻깊은 모임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본다.

□ 숲정이 명상

바로 지금,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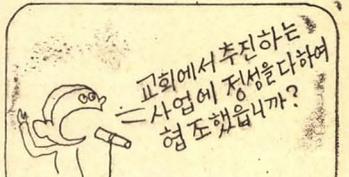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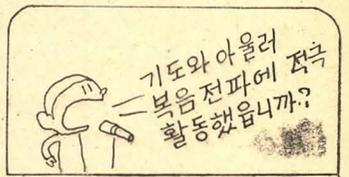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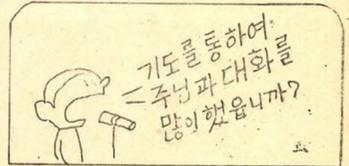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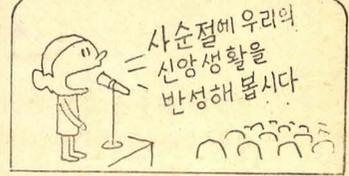
하느님의 자녀는 궁중에 있는 왕자나 공주가 아니다. 궁중 안에 있는 자는 보고(報告)는 받을지 모르지만 진실한 현실의 세계를 보고, 느끼지 못한다.

성서는 이런 궁중에서 나가서 '인간의 삶을 같이 걸으라'고 하신다. 자기 주위에 민감한 자, 자기가 처해진 세상에 민감한 자, 하느님의 뜻을 자기 안에서만이 아니라 타인과 연결시킬 줄 아는 자, —참다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세일 것이다. 지금은 사순절—고신과 극기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쇠신시키는 때이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 소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새롭게 생각해 볼 때이다. 특별히 험벗고 굶주리는 내 이웃의 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절실한 때이다.

'네가 지닌 모든 물건을 사용하는데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 눈, 내 마음, 내 주머니를 열어서 이웃과 나눠야겠다. 사랑을, 봉사를, 희생을 말하는 것하고 사랑, 봉사, 희생, 그자체가 되는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할 때는 바로 지금, 여기인데,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기에만 너무 바빠서 사랑해야 할 지금, 여기를 잊고 있다는 어느 선인의 말씀이 생각난다.

요십이 (608) 김병오



전주대건신협 노인 상호회 실시

대건신협에서는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은 물론 일반 노인들의 노후를 위하여 회원 상호고시 유족을 돕는 상호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가입: 55세 이상의 건강 한 남·여 가입금 10,000원 납입
2. 회비: 회원 1명 상호고시 1,000원씩으로 하되 편의상 월 5천원으로 하고 매년 3월과 9월에 정산함
3. 상조금 지급:
 - ① 3개월후 18개월이내—80만원
 - ② 18개월후 4년이내—90만원
 - ③ 4년후—100만원
 - ④ 상호회비 1천회분 납입이후 110만원

전주대건신협노인상조회회장
☎ 0191~4

주 단·포 목
훈수(회갑)웃감
맞춤이불·카텐지
보드론이불 전주특약점

◇년중 정기세일◇
3월 25일~4월 25일

서 울 주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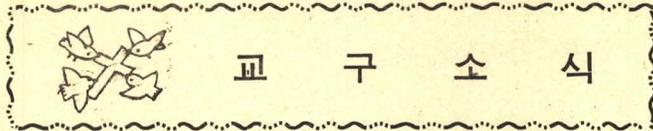
☎ 0453 5095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마춤·대여□ 신 부 의 집

*웨딩드레스·연주복·비디오촬영·폐백의상·신부부케·야외촬영
판통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 6951
정 인 기(논지도)
최 영 자(헬레나)

미성 (美星) 성

全州 코아백화점 1층
미성핸드백 대리점
*취급품목
핸드백·벨트·지갑·기타
피혁소품
☎ 교환 72-0551-5
72-0561-5
김 혜 겹(헬레나)



1. 주교님 성주간 일정 안내

예수 수난(성지)주일(31일)—진안본당, 성 목요일(4월 4일) : 성유축성미사—중앙본당 오전 11시, 성유그릇 지참 주의 만찬미사 : 이리 동정성모회 오후 7시30분, 성 금요일(4월 5일) : 고창 동혜원—오후 3시
 성 토요일(4월 6일) : 진동본당—오후 9시, 부활주일(4월 7일) : 중앙본당—10시 30분, 동산동 본당—오후 3시

2. 제 6기 예비자반 영세식 : 31일(오늘) 오후 7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강당

3. 대학생 가톨릭 사상강좌 : 31일(오늘)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강당, 연제—종교와 문학, 연사—송기숙 교수

4. 테클라 모임(성바로모 여자수도회 성소자 모임) 4월모임 변경 : 매월 첫일요일 오후 2시에 갖는 테클라 모임이 4월 7일 예수부활 대축일 관계로 둘째 일요일(14일)로 변경합니다

5. M. E. 정주지역 사도직 “참 부모가 되는 길” : 일시—4월 5일, 장소—정주 시기동 본당

6. 제23차 어린양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 : 일시—4월 14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전동 천주교회 사제관 2층 ※ 제 3대 지도신부 : 김프란치스코(기곤) 신부님

7. 제 8차 성실하신 동정녀 소년 꾸리아 : 일시—4월 14일 오후 2시, 장소—이리 창인동 천주교회 L.M회의실

8. 푸른군대 특별피절 : 4월 4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강사—오기선 신부님·지정환 신부님

준비물—접수비 1천원, 도시락 지참, 미사도구 및 피절도구, 장소—노송동 본당

9. 군중 후원회 월례미사 : 4월 1일 오후 7시 30분, 가톨릭센터 3층 성당

10. 일선 장병에게 부활달걀을 보냅니다 : 군중 후원회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오늘은 사순절 특별헌금 주일입니다 :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교구에서 배부해드린 저금통은 3월 29일 불우 청소년 들을 위하여 단식을 지킨 뭇을 주일에 헌금하시고 각 본당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4월 10일까지 교구 사목국 사회 복지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칠 : 3월 24일 교구소식 10번 성유축성미사 금암본당을 중앙본당으로 고칩니다

전주시 진북2동 1144-1	순 정 이	사 제 관 ㉓ 7 3 6 6
주임신부 김 종 길	천 주 교 회	수 너 원 ㉓ 9 5 6 7
사도회장 김 수 겹		사 무 실 ㉓ 7 3 6 6

☆ 미사시간 안내 (4월 1일부터)

주일 : 새벽미사—6시, 공식미사—오전 10시
 어린이미사—오후 3시, 저녁미사—7시30분
 평일 : 월요일—6시, 수요일—10시, 화·목·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학생미사(토)—오후 7시

☆ 예비자교리 안내

화요일 : 오전 10시—이베로니카 수녀
 수요일 : 오후 7시30분—김체질리아 수녀
 목요일 : 오후 7시30분—남자반(본당신부, 이종욱)
 일요일 : 오전 11시—이베로니카 수녀

1. 성가책 바꿈 : 부활대축일부터 가톨릭성가(통일 성가책)으로 값—1권 2천원
2.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장소—회의실
3. 성인 영세식 : 4월 6일 오후 3시, 참고—4월 2일 오후 8시
 특별교리—3월 28일과 3월 30일 오후 7시30분
 ※ 예비자교리는 4월 26일부터 시작
4. 견진식 : 4월 21일 공식미사 중,

참고 및 교백성사—4월 20일 오후 8시
 견진교리—4월 13일, 4월 15일~19일 오후 8시

5. 성주간 예절
 성지주일 : 어린이미사 오후 1시(누갈따모지 순례), 수난복음—㉑정주복 ㉒김경주
 성목요일 : 4월 4일 오후 7시30분—주의 만찬미사(세족례 있음)
 성체조배 순서 : 20 : 30~21 : 15—진북1동·금암동·어은골·동양아파트, 21 : 15~22 : 00—서신1구~5구역
 22 : 00~22 : 45—진북2동 1~5구역, 22 : 45~23 : 30—진북2동 6~10구역·사도회임원·L.M간부
 성금요일 : 4월 5일(단식과 금욕), 15 : 00—십자가의 길, 19 : 30—수난전례(특별헌금 있음)
 성토요일 : 4월 6일 15 : 00—영세식, 19 : 30—부활전야미사(초지참, 부활삼중 시각, 부활달걀 축성 있음)
 부활대축일 : 4월 7일 미사는 주일과 같음
 ※ 교백성사—9 : 00~10 : 00
 ※ 사순절 이웃돕기 저금통 제출
6. 미사안내 : 금주—매피의 모후, 차주—애덕의 모후
7. 금주전례 : 해설—강원모, 독서—기도—이철수·유희자
 차주전례 : 해설—이귀례, 독서—기도—송용호·정송자

□ 지난주 봉헌금 : 280,160원 교무금 : 513,300원
 감사헌금 : 송루시아—20,000원